

## 《동인론시절구》를 통하여 본 신위 문학비평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

강 복 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문학사에 올라있는 훌륭한 작품가운데는 평론가의 옳은 평가에 의하여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도 적지 않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42페이지)

19세기의 사실주의시인인 신위(1769—1845, 호; 자하 또는 경수당, 자; 한수)는 우리나라 력대의 이름있는 시인들과 작품들을 평가한 시뭇음집 《동인론시절구》(35수)를 창작함으로써 재능있는 시인이며 비평가로서의 자기의 시적재능과 평론가적기량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이 시뭇음집은 신위의 시집 《자하시집》5권에 올라있으며 창작시기는 《신묘 5월》 즉 1831년 5월로 되어있다.

《동인론시절구》는 세련되고 풍부한 내용에서뿐만아니라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의 시화, 시평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무엇보다도 《동인론시절구》를 통하여 보게 되는 신위 문학비평의 형식에서의 새로운 측면은 그것이 현존하는 문헌기록상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운문형식의 체모를 뚜렷이 갖춘 비평시뭇음이라는것이다.

신위의 《동인론시절구》는 한마디로 말하여 35수의 시뭇음으로 이루어진 운문형식의 비평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동인론시절구》는 후기신라의 최치원으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김상헌에 이르기까지 당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던 정지상, 리규보, 진화, 리색, 서거정, 성현, 박상, 신광한, 정철, 권필 등 51명의 작품들과 그들의 작가적지위, 시창작과정의 일화, 해당 시기의 시문학사조와 문학현상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있으며 매 시편말에 해당한 주석을 달고있다. 비록 35수밖에 되지 않는 적은 시편에 매우 짧고 간결한 시형식인 7언절구형식을 취하고있지만 《동인론시절구》가 포괄하고있는 비평의 대상과 범위는 비할바없이 크다. 비평대상으로 선정된 인물들만 하여도 그 수는 무려 수십여명에 달하며 시기적으로도 그 범위는 9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약 800년간에 걸치는 방대한 시기를 포괄하고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운문으로서뿐만아니라 비평으로서의 형식과 특성을 잘 살릴수 있도록 독자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뿐만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느끼게 할수 있는 내용, 깊은 뜻을 담고있으면서도 명백하고 복잡한 논리적추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리해하게 할수 있는 적절한 내용들을 취사선택하고있다.

원래 운문형식의 비평은 문학현상에 대한 평론가의 견해나 주장 등을 시적언어구사를 통하여 간결하면서도 명백하게 밝히는데서 매우 효과적이고 특색있는 비평형식이다.

신위 이전시기에 나왔던 시화형식은 시 또는 시창작과 관련한 이야기로서 대체로 시평 및 시론적인 성격과 함께 서술형식에 있어서 산문적인 방식을 취하고있었다.

시화에는 필자의 미학적견해와 함께 시의 창작경향과 형상기교에 대한 평가, 작가의 창작경험을 비롯하여 많은 문학관계자료들이 소개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문예비평사와 문학사연구에서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동인론시절구》는 7언절구형식의 비평시 묶음으로서 지난 시기의 시화, 시평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시화, 시평의 창작이 전부 패설과 같은 산문적인 방식으로 일관되어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신위 이전시기 우리 나라에서 운문형식으로 된 비평의 창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3세기에 리규보에 의하여 운문형식의 비평창작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평이 갖추어야 할 체모, 다시말하여 해당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미학정서적인 평가와 분석이 동반되지 못하고 시나 시창작과 관련한 시인자신의 일반적인 미학적견해들이 반영되는데 그치고있는 시론적인 성격의 시인것으로 하여 운문형식의 비평으로서의 고유한 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리규보의 시 《시를 논한다》를 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여기에서 리규보는 시문학의 본성에 대하여, 시창작에서 나서는 일련의 미학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자신의 시창작경험과 결부된 여러가지 견해들을 피력하였다. 그는 이 시에서 자신의 시창작경험을 일반화하여 시창작에 관한 리론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개별적인 시인들이나 그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창작경험과 결부된 시창작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표명되는데 그치고있는것으로 하여 비록 운문으로서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해당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를 동반하는 비평으로서의 체모는 갖추지 못하였다.

그는 시창작에서 예술적규범의 하나로서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시짓기란 참으로 어려운것  
말과 뜻이 함께 아름다워  
그안에는 깊이 숨은 뜻이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야 하리

...

리규보는 우에서와 같이 시란 《말과 뜻이 함께 아름다워》 내용과 형식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고있어야 한다는 비교적 옳은 견해에 서있었기때문에 시창작에서 급계만 꾸미려고 하다가 시의 참뜻을 잃어버리는것을 반대하였으며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내용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내용이 없이 형식의 꾸밈만을 일삼는 형식주의적창작기풍을 그릇된 병집으로 날카롭게 반대배격하였다.

리규보는 이렇게 시학의 중요한 제 문제들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그대로 시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운문으로 된 시평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신위의 《동인론시절구》에서는 시창작과 관련한 필자자신의 일반적인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 분석자, 비평가로서 선행한 작가와 작품들을 미학정서적안목으로 투시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는 평론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동인론시절구》에 반영된 35수의 시들은 운문형식의 비평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것이다.

신위자신도 물론 시론적인 시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도 그는 선행시기 시론들에 비하여 한층 확대심화된 시창작실천상의 미학적문제들을 작품에 반영하였다.

실례로 신위의 《금령, 하상 두 아들을 위하여 지은 론시》에는 시에 대한 그자신의 미학적견해가 반영되어있다.

시를 배우는덴 본령이 있다네  
 도습하여 이루는것 아니라네  
 시속에 모름지기 사람이 있고  
 시밖에 아직 일이 있다네

《시속에 모름지기 사람이 있고/ 시밖에 아직 일이 있다네》라는 시구는 시속에 시인의 얼굴, 시인의 뚜렷한 개성이 있고 간결하고도 함축된 시형상속에 아직 다 토로하지 못한, 다 말하지 못한 감정, 숨은 사연이 있어야 한다는것 다시말하여 시어는 비록 짧고 간결하여도 그속에 실로 많은 뜻을 함축하여 반영할줄 알아야 한다는 시에 대한 자기 식의 견해, 시창작의 묘리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계속하여 그는 《시로 하여 그 사람을 알고/ 시대와 지방을 안다네》라고 하면서 해당 시대, 해당 지방의 미감과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시인의 개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시는 위작(가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신위는 이 시에서 주위에서 환기된 인간의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시문학의 특성을 잘 살려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된 시를 창작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시인들이 마땅히 시어구사, 기교련마에 많은 품을 들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신위의 이 시도 자신의 시창작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일반화한것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에서 시론적인것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선행시기의 비평들은 대개 산문의 형식을 취하고있으며 운문인 경우에도 대부분이 시론적인 내용이 위주로 되고있다.

그러나 《동인론시절구》에서 보게 되는 신위의 비평시들은 단순한 운문형식의 시, 시론적인 성격의 시가 아니라 시기별로 나타나는 작가와 작품, 문학현상들에 대한 그자신의 평가와 견해가 안반침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운문으로서뿐아니라 비평으로서의 체모도 원만히 갖추고있는 독특한 형식의 시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 력대의 이름있는 시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분석평가하는 과정에 발견한 성과와 결함들, 그에 대한 신위자신의 견해와 주장, 평가가 담겨져있고 당시 시창작에서 제기되고있던 실천적문제들에 관한 자신의 미학적견해를 시적언어구사를 통하여 밝히고있는 《동인론시절구》의 형식상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작품을 분석평가하면서 동시에 창작실천상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미학적해답을 주는 비평의 창작과정과 같다고 볼수 있다. 또한 그 어떤 격식에도 구애됨이 없이 시의 내용과 형식을 해당 작품들사이의 대비와 실례, 작가일화나 작품창작경위, 작가의 창작수법 등을 재치있게 엮어가면서 형상적으로 전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운문식비평으로서의 독특한 면모도 잘 갖추고있다.

결국 운문으로서뿐아니라 비평으로서의 체모까지 원만히 갖춘 이와 같은 독특한 형식의 비평창작은 신위에 의한 《동인론시절구》창작에 와서 비로소 개척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즉 신위는 이러한 비평형식을 새롭게 탐구하여 종래의 짝막하고 산만한 인상비평에서 벗

어나지 못하던 선행시기 비평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비평의 형식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그의 사상미학적기능도 한층 높이려고 하였던것이다.

비평가로서의 미확정서적인 감수능력과 남다른 안목을 지니고 력대의 작가와 작품들을 분석평가한 신위의 운문식비평들은 작가평과 작품평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가운데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선행시기 시화들에 반영된 자료에 근거하여 지은 운문형식의 작가평들이다.

군주가 재주 아껴 쫓겨난 신하 관심하니  
문장이 태평과 번성의 시대 만났구나  
풍족하고 민첩한 시 천수  
세상사람들 룡멸하기엔 충분하다네

이 시는 차천로의 시재를 평가한 《동인론시절구》의 제25수인데 김득신의 《종남총지》에 실린 시화에 근거하여 지은것이다.

그에 의하면 선조 19(1586)년에 정자라는 벼슬에 있었던 차천로는 알성시때에 동향인려계선을 위하여 대신 글을 지어주어 장원급제하게 한 일이 발각되어 매를 맞고 명천에 귀양갔다고 한다. 북병사가 부임되어가면서 하직인사를 할 때 선조가 이르기를 《차천로는 비록 죄를 짓고 귀양갔지만 내가 그 재주를 아끼니 잘 돌봐주라.》고 하였다. 병사로부터 사연을 들은 차천로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얼마 안있어 차천로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1589년에는 통신사 황윤길을 따라 일본에도 갔다왔다.

신위는 이러한 시화를 소재로 하여 당시 임금까지도 귀중히 여긴 차천로의 뛰어난 시재를 평하였던것이다.

《동인론시절구》의 제26수도 정현과 권갑에 대한 시화자료에 기초하여 창작한 운문형식의 비평이다.

정현이 해주목사로 갔을 때 부용당현관의 여러 시편들을 보고 다 가져다 객사의 방자에게 주며 쪼개서 땔나무나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스스로 《달빛밝고련꽃향기 풍겨 밤경치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 옥통소까지 붙여주네/ 열두곡조 끝나도 잠 이루지 못하니/ 벽성의 가을회포 실로 끝이 없구나》라는 절구 한수를 지어 들보우에 걸게 하였다. 그후 임진왜란때 왜구가 해주에 들어와 부용당현관우의 시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는데 유독 정현과 김성일의 두 시만을 남겨두었다. 김성일은 비록 시에 능하지 못하였지만 일본에 통신사로 갔을 때 일본을 중시하는 립장을 취하였기때문에 그의 시를 남겨두었고 정현의 시인즉슨 왜적들도 절창임을 알았기때문에 그것을 남겨두었다고 한다. 신위는 류몽인의 《어우야담》에 있는 이 시화를 소재로 하여 《정현의 <달빛밝고련꽃향기 풍긴다>시구가/ 어이 <남루의 고국 종소리>와 같은가/ 안목갖춘 왜인중에 부인할자 있으랴/ 붉은 구름 무탈하게 푸른 채 룡에 비겼네》라고 시의 첫구를 지었다. 두번째 구는 권갑의 시 《송경》의 《찬 겨울의 달은 전 왕조의 기색이고/ 차디찬 종소리는 고국의 소리로다/ 남루엔 시름이 외로이 깃들고/ 남은 성곽엔 새벽구름 이누나》에서 문장을 따서 지은것이다. 신위는 정현과 권갑의 시문장을 들어 두사람의 시가 서로 비슷한 풍격을 지니고있는데 대하여 대비적으로 평하였던것이다. 《동인론시절구》에 반영된 신위의 시들가운데 이러한 형식의 비평들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하고있다.

신위의 비평가운데는 작가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제4, 14, 15, 16, 21수 등이 그러하다.

제4수에서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보급한 정몽주의 공적과 그가 문장과 재주를 겸비한데 대하여 평하였다. 그런가하면 제14수에서는 《허백당과 놀재는 기이하고 건장하며/ 락봉의 맑은 기운 지천과 겨루네/ 중종 선조대의 후진들이 개원, 천보년간이라면/ 서사가는 초당의 4절과 같다네》라고 하여 허백당 성현, 놀재 박상, 락봉 신광한, 지천 황정옥과 사가 서거정의 작가적지위를 함께 평하고있다. 이 시의 주석에 의하면 시의 1, 2구는 신희의 《청창연담》에, 3, 4구는 허균의 《성수시화》에 근거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를 통하여 초엽의 대가로는 마땅히 서거정을 제일로 삼았고 성현, 박상, 신광한, 황정옥이 나란히 절창으로 이름을 날리였으며 초당, 중당시기의 한다하는 시인들과도 당당히 견줄 정도로 시재가 뛰어났다는것을 알수 있다.

제15수에서는 우리 나라 시인들의 지식이 천박한 폐습을 비판하면서 로수신과 최립이 그에서 벗어나 선조초기에 가장 뛰어난데 대하여, 제16수에서는 《해동강서파》라는 문학류파에 대하여 논하면서 당시 시명을 떨친 박은과 리행에 대하여 함께 평하였으며 제21수에서는 우리 나라 민족시가문학의 대표자들인 정철과 권필을 함께 평하고있다.

작가평가운데는 한편의 시안에서 무려 5명이상의 시인들을 함께 평한것도 있다.

허백당 성현(1439-1504), 놀재 박상(1470-1530), 락봉 신광한(1484-1555), 지천 황정옥(1532-1607)과 사가 서거정 등의 지위를 함께 평한 제14수가 그 대표적실풀이다.

허백당과 놀재는 기이하고 건장하며  
락봉의 맑은 기운 지천과 겨루네  
중종 선조대의 후진들이 개원, 천보년간이라면  
서사가는 초당의 4절과 같다네

신위는 허균의 《성수시화》, 신희의 《청창연담》에 근거하여 이 시의 주석에서 그들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우리 조선의 시는 중종때에 이르러 크게 이루어지고 선조때에 와서 크게 갖추어졌다. 리용재가 처음으로 제창하고 박놀재, 신락봉, 정호음, 박읍취가 아울러 함께 태어나 천고의 절창으로 불리울만 하다. 로소재, 황지천이 잇달아 서로 교대하여 최경창, 백광훈과 더불어 근체시를 본받았다. 권석주가 늦게 나와서 용재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초엽의 대가는 마땅히 사가 서거정을 제일로 삼으며 김점필재, 성허백당이 그다음이다. 당나라 시를 비교하면 사가 등 여러 공은 초당의 4절이며 중종, 선조때의 여러 이름있는 대가들은 성당시기의 개원, 천보년간의 시인들과 같다.》(《성수시화》)

《대가인즉은 사가 서거정이 마땅히 제일로 되고 점필재 김종직, 허백당 성현이 그다음이다. 놀재 박상, 호음 정사룡, 소재 로수신, 지천 황정옥, 간이 최립 같은 사람들은 강운과 기이하고 건장한것으로서 능사로 삼아 바른것을 얻는데 이르렀다.》(《청창연담》)

이를 통하여 신위가 성현과 박상, 신광한과 황정옥의 시풍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사가 서거정과 그들의 지위를 함께 논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동인론시절구》에 포함된 신위의 비평들가운데는 선행시기 작품들을 평가한 작품평

도 적지 않다.

신위는 《동인론시절구》에서 력대의 시화, 시평들에 실려있는 작품들의 예술적특성에 대하여 재치있게 평하고있다.

제20수는 사암 박순의 시를 평한 시이다.

돌길 더듬는 지팽이소리 잠자는 새나 알리로다  
백운동 골안에 달이 질무렵이여라  
청수고절함은 남들이 미칠바 아니니  
생각컨대 시속에 훌륭한 자태있음을 알겠노라

신위는 주석에서 권응인의 《송계만록》에 근거하여 《사암 박순의 〈백운동 조씨초당에서 자며〉라는 시에는 〈취하여 신선집에 잠들었다 깨고보니/ 백운동골짜기에 달이 지는 때여라/ 대나무숲 바깥으로 나 홀로 나가노니/ 돌길 더듬는 지팽이소리 잠자는 새나 알리로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잠자는 새를 선생으로 알았다.》고 하였다.

신위는 박순의 〈백운동 조씨초당에서 자며〉라는 시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를 뽑아 시를 구성하면서 사암 박순의 청수고절(맑고 다듬고 쓸쓸하면서도 절개있는것)함은 사람들이 능히 미칠바가 아니라고 평하였다.

한편 제22수에서는 매호 진화와 리규보의 시를 비교하여 평하고있다.

신위는 주석에서 《한림 진화와 리문순공(리규보)이 일제히 이름을 날리었다. 진화의 시에 〈매화꽃 떨어지고 버들은 하느적거리며 휘늘어졌네/ 한가로이 산의 아지랑이 났으며 천천히 거니노라/ 어점엔 문도 달아 인기척도 적은데/ 강에는 봄비가 실실이 푸르러라〉는 맑고도 깨끗한 뜻이 있어 읊을만 하다. 리규보의 시에 〈대자리우에 적삼입고 등창열고 누웠더니/ 뽕잎새소리 두어마디에 잠이 자주 깨이네/ 봄은 갔어도 잎사이에 꽃은 남아있고/ 비는 뿌려도 구름뚫고 그 해빛은 비쳐내리네〉를 읽으니 상쾌하였다.》라고 하였다.

주석에서 서술한 시들은 리규보의 시 《여름날 보는대로》와 진화의 시 《들을 걸으며》인데 신위는 이 시들에서 시구들을 뽑아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진화, 리규보 이름 나란히 한줄을 누가 알라  
쪼박날개 부서진 금마냥 전하는 시도 적구나  
《잎사이에 꽃은 남아있고 구름뚫고 해 비치네》  
《강에는 봄비가 실실이 푸르러라》했거니

시의 셋째 구와 넷째 구에 리규보와 진화의 시를 인용하여 당시 나란히 이름을 날린 그들의 시를 비교하여 평하였으며 진화의 시가 《쪼박날개, 부서진 금》마냥 전해지는것이 보잘것없음을 아쉬워하였다.

신위의 《동인론시절구》는 비평방법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독특한 비평시뮬음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고있다.

신위는 운문형식으로 된 시편들에서 대비의 방법, 평자의 견해를 긍정하는 방법, 반론의 방법 등 독특한 비평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고있다.

우선 여러 이름있는 작가들의 예술적재능과 창작적개성을 서로 비교하여 그 우열을 평가하는 대비의 방법을 널리 적용하였다.

실례로 리색(1328-1396)과 정지상(?-1135)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창작적개성을 평한 제3수를 들수 있다.

이 시에서 그는 《긴 파람 불며 목은공은 덧없는 인생에 의지하고/ <푸른 물결우에 눈물 보탠다>한 정지상/ 웅장하고 고운 맛은 우렐 가리기 어려우니/ 험험한 장부앞의 요조숙녀이랄가》라고 하여 목은 리색의 시를 《억센 장부》에, 정지상의 시를 《요조숙녀》에 비유하면서 창작적개성이 서로 다르면서도 다같이 뛰어난 그들의 시적재능을 평하였다.

시의 첫구는 리색의 시 《부벽루》의 결구를, 둘째 구에서는 정지상의 시 《대동강》의 결구를 인용하였으며 셋째 구에서는 그들의 시들이 각기 웅장하고 화려한것으로 특징된다는 평가를 주고있다.

그런가하면 제10수에서는 비록 생활년대는 한세기정도 차이나지만 다같이 태평시대의 재상들이었던 서거정과 정유길의 시풍이 한미한 선비들과는 같지 않다고 보고 그들의 창작적개성을 대비하여 부하고 화려한것으로 평하였다.

제17수에서는 《재주를 떨쳤네 3당시인 최, 백, 리/ 근원을 거스르니 충암에게서 풍조 시작됐네/ 후세에 <깊은 사원, 외로운 배>시구 전하니/ 돌연히 <살구꽃 보슬비 주렴처럼 드리우네>》라고 하여 세칭 《3당》시인이라고 하는 최경창, 백광훈, 리달을 서로 비교하여 세사람가운데서 리달이 가장 출중하다고 보았으며 그들의 시의 근원이 충암 김정에게서 시작된것이라고 평하면서 작가로서의 그들의 순위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시의 셋째 구는 주석에도 있는바와 같이 리달의 시 《호사의 중의 시권의 운을 따라》의 2련 《병든 길손의 외로운 배는 밝은 달아래 있고/ 로승의 깊은 사원엔 락화가 쌓였도다》의 시구들에서 《외로운 배》와 《깊은 사원》만을 따내어 인용한것이며 넷째 구는 김정의 시 《강남시》에서 마지막련인 《락화와 보슬비 무거운 주렴처럼 드리우네》에서 《락화》를 《살구꽃》으로 바꾸어놓은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는 16세기 한자시풍을 새롭게 전환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3당》시인의 작가적지위를 대비적으로 평가하였던것이다.

신위의 비평에서는 선행시기 비평가들의 작가, 작품평내용을 긍정하는것을 통하여 비평가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밝히는 방법도 적용되었다.

제1수에서는 최치원이 지은 시에 대하여 《이 시는 하나의 여지지이다.》라고 한 중국의 이름난 시인 고운의 평을 그대로 인용하는것으로서 자기의 견해도 같다는것을 피력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제5수에서는 허균이 《성수시화》에서 김구용의 시적재능에 대하여 리색이 감탄하면서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시화하여 지음으로써 김구용에 대한 리색의 평가와 또 그것을 평한 허균의 견해에도 긍정적태도를 취한다는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방법은 제14, 18, 20, 32수들에서도 적용되고있다.

그의 비평방법가운데는 반론의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30수를 들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세 이름있는 녀류시인인 허란설현에 대하여 그릇되게 평가한 홍경신과 허진의 평을 부정하면서 란설현을 규수들중 제1대가라고 반박평가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동인론시절구》에 반영된 신위의 비평형식과 방법들은 다양하면서도 매우 독특하다. 물론 신위의 비평들에는 작품을 선정하고 평가하면서 사상적내용보다도 예

술기교적인 측면을 위주로 하거나 사대주의적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결함도 있다.

그러나 신위는 력대의 작가들과 작품, 문학현상에 대한 비평가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정서적으로 드러내고 명백히 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인 운문형식의 비평을 새롭게 개척탐구하여 비평의 형식을 다양하게 하고 그의 사상미학적기능을 높이였을뿐아니라 시창작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론한것으로 하여 19세기 우리나라 비평의 발전수준을 과시하고 비평사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실마리어 동인론시절구, 신위